





# 종전선언채택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요구

# 조선훈교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어느덧 6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이 땅에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거리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정전의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있다. 세계를 이어온 북남, 조미간의 적대관계와 대결상태를 끝내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것은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나서고있다.

나중에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것을 명시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조미 두 나라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것을 밝힌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열렬히 지지찬동하면서 종전선언이 하루빨리 채택될것을 바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이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도 중대한의의를 가진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종전선언발표로 조미사이, 북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가 끝장나면 반세기이상이나 쌓이고

쌓인 불신과 적대의 앙금이 가서지게 될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려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면서 북부핵실험장 폐기로부터 미군유해송환에 이르기까지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진정어린 선의와 야망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일치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있다.

현실이 이러한함에 불구하고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저를 리행하게 되어있는 종전선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공화국에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들이먹이려 하고있다.

종전선언채택은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종전선언발표문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적인 동시에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로 된다. 조미사이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발표하는것이 유익하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여러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층도 《정전협

정이 필요하면 종전선언은 마필표》라고 하면서 《국민모두가 힘을 합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이 올해안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금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전쟁이 영원히 종식된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강렬한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여 종전선언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박영길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인 전제이다.

평화는 항시적으로 핵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의 절절한 염원이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민족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속에서 북과 남이 마주앉아 통일을 위한 허심탄화한 대화를 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평화적환경이 마련되야 북남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수 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사업들도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지난 시기 조선반도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발광적인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 군사적대발행위로 말미암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한순간에 얼어붙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평화없는 통일과 번영에 대해 생각할수 없고 민족의 생존에 대해 말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이제 65년이 흘렀지만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있다.

조선반도는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체결이후 지난 60여년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한핵전쟁연습을 광범적으로 벌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켜왔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무겁게 감돌고있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 북남관계는 총포탄이 오가는 험악한 지경에 처하기도 하였다.

2015년의 8월사태는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올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중동적인 노력으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북남관계,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지만 조선반도에서의 종전은 아직도 해결을 기다리는 과제로

남아있다.

종전선언채택은 역사적인 판문점수비상봉과 싱가포르조미수비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문제로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공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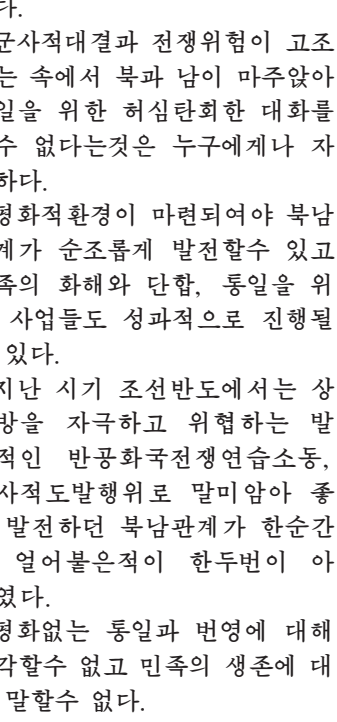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북, 남, 미 3자 또는 북, 남, 중, 미 4자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역사적인 싱가포르수비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은 싱가포르조미수비회담의 합의에 배치되게 종전선언발표는 뒤로 밀어놓고 일방적인 비핵화요구와 《최대의 체제압박》만을 떠들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는데 마땅한 책임과 의무감을 지니고있는 미국은 6.12조미수비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본기자 최광혁



##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실천적조치의 일환으로 8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시작된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26일에 끝났다.

24일부터 진행된 2차상봉

에서 북과 남의 상봉자들은 민족분리의 오랜 세월 보고 싶었던 혈육들을 만난 기쁨과 격정속에 지나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들은 통일의 그날 다시 만날것을 서로 약속하며 작별하였다.

본기자

은 남북적십자사가 차린 연회에 참가하였다.

상봉을 마친 북과 남의 가족, 친척들은 통일의 그날 다시 만날것을 서로 약속하며 작별하였다.

본기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조미공동성명채택이후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흐름에 배치되는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벌어져 사람들의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선 비핵화》의 미명하에 미국이 벌리고있는 제재소동과 함께 군사적압박책동이 바로 그러하다.

얼마전 미국은 남조선주민병력을 2만 2 000명이하로 축소할수 없으며 조선반도비핵화협상에 미군철수문제를 포함시킬수 없다는것을 조아박은 《2019년 국방수권법》이라는것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공화국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10억 US\$를 지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채협상 등을 통해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영원히 타도앉으려는 범죄적기

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판문점선언과 조미공동성명에 배치되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조미공동성명에서 조선과 미국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라고 합의하였다.

한편 미국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북과 남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지지찬동하였다. 하다면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채택문제에도 적극 나서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하는것을 외면하고 군사적긴장상태를 높이며 상대방을 자극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와는 너무도 상반되는것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조선반도화해흐름에 역행하는 미국을 단죄하는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최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련대 등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이 서울과 부산, 광주를 비롯한 각지에서 《미군철수 통일아라리》발대식, 미군학살단행공개행시, 미군철수를 위한 해물시위, 맥아더동상화형식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남조선전역에서 반미투쟁을 더욱더 활발히 벌리고있는것은 그 몇가지 실례들이다. 앞으로 이들은 미국이 《해방자》의 허물을 뜨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73년이 되어

오는 9월 8일을 계기로 반미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고 결의해나서고있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동쪽의 외괴를 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한미동맹》강화, 《안보》타락을 철새없이 떠들며 동족대결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동족대결이 체질화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미군비호책동은 남조선에 영원히 미국의 속국으로,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희생물로 내맡기려는 현대판 《울사조》들의 반민족적망동이다.

시대는 변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번영의 새력사가 펼쳐지고있는 오늘 구태의연한 대결판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의 낡은 퇴물들이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계속 도전해나선다면 그로 하여 차별될것은 더욱 큰 재주와 규탄뿐이다.

본기자 안권일

남조선신문 자주적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8월 24일 사실을 통해 북남관계문제해결에서 자주적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문은 새로 나오게 되는 남북공동언론사무소는 4.27판문점선언에 명시된것으로서 《대북제재》대상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는 미국이 제 마음대로 꾸며놓은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 해도 되고 주변국들은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무엇인가 할수 있다는것이 《대북제재》의 현실이라고 신문은 까맣혔다.

민족문제에 민족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원칙이 확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사이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신문은 주장하였다.

본기자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남단일팀을 무어 진행한 경기들에서 거둔 성과들이 민족의 통일열망을 더욱 불려일키고있다.

만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만나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더 강해지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시위하였다.

승리로 기쁨넘친 경기장들과 얼싸안고 기뻐하는 북남 선수들의 모습은 통일의 그날에 온 겨레가 한데 모여 기쁨을 나눌 그 시각을 생각해 했다.

그러한 생각은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남북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김주식, 럼대옥선수들에게도 간직되어있었다. 한낮의 무더위로 밝은 달아올랐지만 그들이 오늘도 훈련을 진행하는 빙상관안의 차디찬 얼음판은 녹을 줄 몰랐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2016년 메라노컵 빙상회경기대회 성인급 쌍빙 회전경기대회 2019년 아시아컵 공개빙상회경기대회에서 1위를 경회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그들이었다.

세계적인 휘거명수가 되기 위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우와 같은 경기성과들을 이룩한 김주식, 럼대옥선수들에게 대해 알고싶어 얼마전 우리는 김현선 대성산체육단 휘거감독을 먼저 만났다.

선수들이 일단 훈련에 들어가면 모든것을 훈련에 복종시킨다고 하면서 그는 선수들이 조를 무어 경기에 출전한다는 말만되지 않지만 놀라운 경기성과들을 내게 된다는 나라의 정연한 휘거선수후비육성체제와 함께 선수들의 남다른 이의성이 큰 은을 내었다고 하였다.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품성과 강한 육체를 소유한 김주

는 휘거선수가 되고싶다고 하면서 능숙한 체조동작까지 하여 자기도 얼마든지 휘거선수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지만 일단 세운 훈련목표수행을 위해 밤잠도 있고 노력하는 짧은 기간에 관목있는 선수들 못지 않은 수준에 올라선 럼대옥선수이다. 예술적 감각이 좋은 그는 음악에 맞추어 얼음우를 지질 때면 휘거 역시 아름다운 예술처럼 느껴진다고 말하였다.

이런 그들을 공화국에서는 유능한 감독들의 지도와 함께 경기경험과 대담성을 키워주기 위해 많은 경기들에게 출전시키였다.

그 나날에 이들은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여야겠다는 불타는 결의를 간직하게 되었다.

럼대옥, 김주식선수들은 휘거를 떠난 자기들의 생활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휘거생경기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는것이 우리의 꿈이고 목표이다.》라고 말하였다.

통일념원을 은반우에 수놓으며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기간은 럼대옥, 김주식선수들에게 있어서 체육으로서만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써 겨레의 통일념원을 은반우에 새겨가던 잊을수 없는 날이기도 하였다.

화해와 단합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제23차 겨울철올림픽대회에 공화국의 선수단이 파견될 때 이

갚은 응원과 편의를 도모 해주었다고 한다.

남조선의 대학생들은 그들이 경기를 하는 경기장을 찾아다니며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였으며 난도높은 기술동작을 펼칠 때마다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그때의 감동에 젖어 김주식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을 나서는데 남조선의 한 기자가 어떻게 되어

경기를 그렇게 잘하게 되었다고 물었다. 그래서 대답해주었다.

경기장에 들어가니 우리 응원단과 남녘의 응원단이 마음을 합쳐서 열광적으로 응원해주셔서 심리적으로 고무되어 잘한것 같다. 북남의 단합된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절감하게 됐다.》고 말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

리치는것이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전에 쟁쟁합니다.》

당시를 회고하는 럼대옥선수의 말이다.

오늘도 김주식, 럼대옥선수들은 화해와 단합의 열기로 설레이던 경기장에서 은반우에 아름다운 물동을 펼쳐가던 그 격동과 환희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다.

《우리가 탄 차가 서서히 떠나고 창문을 열고 손을 저어주자 많은 선수들이 달려와 우리의 손을 꼭 잡으며 잘 가라고, 통일이 된 날에 다시 만나자고 울며이며 소

본기자 강류성

